

혐오와 차별에 응답한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차별금지조례안 부결 규탄 성명 -

오늘(9/15) 진행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우리는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전주시의회 행정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 이미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근거 없는 억지와 부당한 이유를 들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차별·혐오의 목소리에 대한 수용이 아닌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관점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위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 인권 존중·보호·실현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의회가 혐오와 차별의 주장을 귀담은 상황은 인권적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34명의 의원 중 과반이 넘는 22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상황에서 본회의 과정에서의 토론과 표결의 필요성도 명백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위가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문제점이다. 아울러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을 묵인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된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누구의 존엄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이미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차별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는 시대의 목소리가 아닌 혐오세력의 궤변에

응답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다시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사회를 위한 노력이 멈춘 적은 없었다. 비록 오늘
의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
민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차별과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평등권 보장이 되
는 사회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0. 9. 15.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민중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약칭 :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참가단위

(무순) :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 토닥토닥, 페미니즘학회동행 (41개 단위)

*전북민중행동 참가단체 (무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29개 단위)

● 문의 : 채민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63-278-9331)